

‘안전한 정읍, 따뜻한 경찰’… 감동 치안서비스 조성

제 74대 정읍경찰서장으로 취임한 황동석 총경이 23일 자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황동석 서장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을 경찰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현장’에 집중해 행복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활동, 메시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안심치안 구현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 시민들로부터 평온한 치안이 유지되고 있다고 호평을 받고 있다.

황동석 서장은 “앞으로도 정읍경찰서 전 직원이 하나가 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대민 현장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경찰과 지역사회가 든든한 치안동반자가 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공동체 치안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월 테마 선정, 절도 예방을 위해 ‘온 힘’ 절도 발생 분석을 통한 시기별 테마선정 선제적 예방대책을 수립해 최근 3년간 절도발생 분석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시간대 분석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가시적인 경찰활동으로 범죄분위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1~2월 명절 전후 범죄예방 △3~6월 빙집털이 예방 △7~8월 휴가철·현금다액 취급업소 범죄예방 △9~11월 농축산물 절도예방 △12월 연말연시 범죄예방 테마를 선정해 문제 지향적인 대응으로 체감안전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30일까지 농축산물 절도예방 특별방법기간으로 선정, 농산물 보관장소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단속순찰 노선을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농민들이 땀과 성정으로 키운 농산물 절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농축산물 보관 장소·재배 장소에 대한 특별 순찰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축산 농가를 직접 방문,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는 등 절도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 공동체 치안 활성화

지난달 28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경찰학교 7기 교육생 32명과 시민경찰연합회장(회장 배상호)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경찰학교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민경찰학교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개최된 것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봉사에 열정이 있는 주민들 중 총 32명을 선발해 지난달 28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총 3일간 진행됐다.



시기별 테마로 절도 선제예방책 수립

시민경찰학교 운영·오솔길 순찰대 구성

16개 지역관서에서 지역안전순찰 실시

울 범죄예방 집중개선 사업지로 선정

스마트 화재알림기·비상벨 등 설치

주민 교통불편 해소 위해 민원들 종합해

교통안전 심의회 주기적으로 개최

폭력 예방·피해자 인권 보호 등도 노력

치관리기,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설치했고, 스마트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가로등(전신주)을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해 스마트시티로 발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셀프드 활용, ‘밝은’ 거리조성으로 범죄취약지 개선

범죄예방진단팀(CPO)은 조도, 조명간격, CCTV 설치여부 등 셀프드(CPTED) 기법을 활용해 범죄불안환경을 면밀히 진단하고 있다.

특히 연자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원룸밀집지역에 여성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골목길이 어두워 불안하다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 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거쳐 지자체와 협조해 보안등, 방범용 CCTV, 로고젝터 등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해 범죄취약지역을 신속히 개선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범죄예방개선사업에 공모한 결과 집중개선 사업지로 선정돼 경찰청 예산 확보를 했으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샘고을시장 주변(272㎡) 원도심에 지자체에서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화재알림기, 스마트 비상벨, 스마트 주

신설, 신호등 신설등과 같은 시설 개선을 진행 하였으며 다양한 지역행사 및 내장산 단풍철 교통체계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의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근무, 장날 어르신 교통안전 홍보활동, 노인복지회관 방문 교통안전교육 등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교육 홍보활동을 진행중이다.

▲ 학교폭력 예방 ‘Clear-Song’ 제작 홍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작사·작곡해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노래를 교육청, 정읍시 관내 학교 67개교를 이용해 교내방송 통한 음원 재생,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폭력 신고를 활성화 했다.

▲ 학교·기장밖 청소년 발굴 ‘꿈키움 프로젝트’ 적극 시행

코로나9발생 이후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SNS상의 범죄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버범죄 전방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응원선물을 전달하여 겸정고시 시험합격을 응원했다.

▲ ‘찾아가 GO 안전하 GO’ 캠페인 실시

정읍경찰서는 관내 어린이집 11곳(원아 420여명)을 방문해 이동범죄 예방 교육 및 ‘찾아가는 지문 사진등록 캠페인’을 실시했다. 자치경찰체 치안정책인 지문 사진등록제는 18세 미만 이동, 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지매노인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제도이다.

▲ 학교밖 청소년 선도’ 우수사례

일몰중독자인 아버지와 시간제 일을 하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이 갑작스런 혈액암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과도한 항암치료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는 인터내셔널 상황을 접한 여성청소년회에서는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매월 30만원 및 15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을 응원했다.

▲ 전화금융사기 근절 노력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 개최 및 취약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강의·예방 캠페인을 통한 다각적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 피해자 인권 보호 노력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15건, 2차 피해 재발 예방 인전조치 10건, 긴급 임시숙소 제공 6건, 피해자 CARE 요원 연계 심리상담 2건 등 선제적인 보호활동을 실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축! 전주매일 캠페인